



나 혼자 산다·해피투게더·현집새집... 10편 다작왕 전현무

“재능에 비하면 대박이죠”

가장 애정받는 프로그램 JTBC ‘히든 싱어’

호흡이 가장 잘맞는 파트너로 박명수 뽑아

10여 년 전 한 방송사 앵커는 뉴스 프로그램 녹화를 끝내지 직전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발랄하게 외쳤다. 신참내기 앵커의 돌발적인 클로징 멘트는 ‘당연히’ 편집됐다. 개그감을 감추지 못했던 앵커는 먼 길을 돌고 돌아 전문 예능인으로 거듭났다.

요즘 TV를 틀기만 하면 나오는 전현무(39)다. “월요일은 ‘나 혼자 산다’(MBC)를, 화요일은 tvN에서 시작하는 ‘노래의 탄생’과 JTBC ‘현집새집’을 찍어오. 수요일은 ‘수요미식회’(tvN)와 ‘프리한 19’(O tvN), 목요일은 ‘노섹시대-문제적 남자’(tvN), 오늘 금요일은 ‘판타스틱 듀오’(SBS)를 촬영하고요. 토요일은 ‘해피투게더’(KBS2), 일요일은 비정상회담(JTBC), ‘히터스테이지’(엠넷) 이렇게 찍죠.”

고정 프로그램만 10개에 달하니 김구라와 1, 2위를 다투는 다작왕인 셈이다.

전현무는 여기에 MBC TV 추석 특집 ‘아이돌 스타 육상 씨름 풋살 양궁 선수권 대회’와 과학을 소재로 한 KBS 2TV 파일럿(시범제작) 예능 ‘사라진 스펀’까지 추가했다.

그는 일 욕심이 과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저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 저를 찾아주는 방송이 고마울 따름”이라면서 “언제까지도 저만 찾지는 않을 거란 점을 잘 알기에 그 기대에 부응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9월까지만 해도 전현무의 작업은 KBS 아나운서였다. 그는 ‘해피투게더’와 ‘해피선데이-남자

의 자격’ 등 예능에서 범상치 않은 끼와 흥을 과시했고, 모두의 예상대로 결국 KBS를 떠났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제 재능에 비하면 ‘대박’났다”고 평가한 전현무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 채널이 성장하고 종합편성채널까지 막 출범하면서 다채널 시대가 막을 올린 시기와 맞물린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수많은 프로그램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전현무는 가장 각별히 생각하는 프로로 JTBC ‘히든 싱어’를 꼽았다.

“진행과 재미를 동시에 잡았다고 스스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그 프로를 좋아했어요. JTBC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음악방송 역사에서도 한 획을 그은 프로이기도 하고요. 그 프로를 본 PD들이 같이 일하자며 연락도 많이 왔어요.”

함께 호흡을 맞춘 주요 예능인의 매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니 전현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세밀한 평을 늘어놓았다. 그는 매주 특정 음식을 심도 있게 논하는 프로그램인 tvN ‘수요미식회’의 신동엽(45)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신동엽 씨는 타고난 입담꾼이예요. 함께 진행할 때마다 갑탄하죠. 원체 미식가이기도 하지만, 어떤 메뉴가 나오든 본인 경험을 녹여내면서 음식을 잘 띄워요. 제가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이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게 될 정도로요. 물론 대부분 음식을 안주로 소개하는 단점은 있지만요. (웃음) 형

이 ‘섹드립’(성적인 농담)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맛깔나나요.”

이야기는 지난 1년간 ‘해피투게더’를 함께 이끈 유재석(44)으로 옮겨갔다.

“유재석 씨는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는 형이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좋았다가 지겨워지기도 하고 ‘아이고 저 인간’ 소리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형을 좋아하는 이유를 갈수록 느끼게 돼요.”

‘해피투게더’ 삼두마차 중 한 명인 박명수(46)는 정 반대 매력의 소유자다.

“박명수 씨는 잘 알지 못하는 출연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일부터 사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녹화에 와요.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도 할 수 있지만, 시청자 눈높이를 대변한다고 봐요.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잘 잘해요.”

전현무는 김구라(46)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

“상상도 못 할 에드리브를 해요. 럭비공 같은 매력을 보여주세요. 이야기가 A에서 Z로 옮겨가곤 하는데, 배경 지식이 완벽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구라 형이 그렇게 돌발적으로 말하면 제가 장리를 하죠.”

이들 중 전현무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예능인은 누구일까.

“모두와 잘 어울리지만, 굳이 꼽자면 명수 형과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고”고 답한 전현무는 “재석이 형 없는 공간에 들어 한 번 뽀짝아 할 텐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연합뉴스



김지운 감독 ‘밀정’ 베니스영화제 호평

비경쟁 부문 초청

김지운 감독의 신작 ‘밀정’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다.

5일 이 영화의 배급사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에 따르면 ‘밀정’은 제73회 베니스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지난 주말 공식 상영 행사를 마쳤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밤 열린 상영행사 이후 외신들은 “일제의 주요시설을 겨냥한 폭탄 사건을 다루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발이 묶이지 않은, 단 1온스의 군더더기도 없는 작품”(버라이어티), “열차 장면은 그 진가가 돋보이는 장대한 장면이다.”

정교한 촬영과 공들인 편집을 통해 긴장

감이 계속 고조된다”(할리우드리포터) 등의 평가를 내렸다.

이에 앞서 열린 김지운 감독 기자회견에서도 많은 해외 언론과 평단이 참석해 질문을 쏟아냈다.

김지운 감독은 이 자리에서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혼란한 시대에 스파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의 혼돈과 또 그 인물을 통해 시대의 혼돈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답했다.

‘밀정’은 1920년대 말 일제의 주요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상해에서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는 의열단과 이를 쫓는 일본 경찰 사이의 암투와 회유, 교란작전을 그린 영화로, 오는 7일 국내 개봉한다. /연합뉴스

“색다른 수애 만나보세요”

KBS 2TV ‘우리 집에 사는 남자’... 내달 방영

수애(36·사진)가 KBS 2TV ‘우리 집에 사는 남자’ 여주인공으로 발탁됐다.

홍보사 더 티톡은 5일 “10월 방송되는 KBS 2TV 월화드라마 ‘우리 집에 사는 남자’ 홍나라 역에 수애가 확정됐다”면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색다른 수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리 집에 사는 남자’는 스텀어디스 홍나라와 갑작스럽게 등장한 연하의 새야빠 고난길의 사랑 이야기다. 고난길 역 배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애의 TV 로맨틱 코미디 출연은 이정진과 호흡을 맞췄던 MBC TV ‘9회말 2아우’



이후 9년 만이다.

수애는 이후 ‘가면’(SBS·2015), ‘야왕’(SBS·2013), ‘천일의 약속’(SBS·2011), ‘야테나 : 전쟁의 여신’(SBS·2010) 등 멜로드라마에 주로 출연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성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월에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토크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10 좋은 아침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0	00 2016 제1차정당정책 토론회	40 주근초 뉴스		
11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재)		00 닥터 365 05 특집 다큐멘터리 (문명)
12	00 KBS 뉴스12	05 1대 100(재)	00 MBC 정오뉴스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	00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05 루키 (재)	05 TV속의 TV	55 TV블로그 토크
2	00 다류공감 (재) 55 생방송사의 비밀 (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문화사색 50 텔레온스터	00 영재 발굴단(재)
3	50 감성애니 하루(재) 55 트윈생애(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퓌? 퓌! 키즈스쿨 55 파워배틀 외치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강건문록 남도에 살아리었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토크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맨인블랙박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VR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 려)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이육성 PD의 자연 담은 한끼 (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9월 6일 (음 8월 6일 辛卯)	
05:00 EBSe 생활영어	10:30 한국기행(재)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여드벤처)(재)	19:30 EBS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비경 서해객유람기 위이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묵은지 닭볶음탕과 느타리버섯 장아찌)	19:50 극한직업 <서해안 민어잡이>	19:50 극한직업 <서해안 민어잡이>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20:40 다류 오늘 <정겨운 섬, 옥지도>	20:40 다류 오늘 <정겨운 섬, 옥지도>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20:50 세계테마기행 <발칸의 천국을 거닐다, 크로아티아-탈리아 해안>	20:50 세계테마기행 <발칸의 천국을 거닐다, 크로아티아-탈리아 해안>
07:00 레이디 비그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21:30 한국기행 <그리워라 어머니 발삼 - 문어 먹장구의 추억>	21:30 한국기행 <그리워라 어머니 발삼 - 문어 먹장구의 추억>
07:30 로보카 폴리	12:40 지식채널e	21:50 EBS 다큐프라임 <클로버 이빨 찾아 삼만리>	21:50 EBS 다큐프라임 <클로버 이빨 찾아 삼만리>
07:45 꼬마버스 타요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08:00 똥덩이 유치원1~3	13:35 뷰티풀 코리아 <조선의 신전, 종묘>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출거운 수학 EBS MATH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50 그림을 그려요?		
09:15 출동! 슈퍼왕스	13:55 캐니멀		
09:30 이암! 스페이스 정글			
09:40 아버지의 귀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6일 (음 8월 6일 辛卯)
子 48년생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일다면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리라. 60년생 상대의 태도에 대한 의증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72년생 상대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84년생 새로운 인연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9.35	午 42년생 양호한 판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54년생 어떤 역할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지겠다. 66년생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판도를 좌우하는 요체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니라. 78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89.02
丑 49년생 성부가 경각에 달려 있으니 지금은 오로지 집중해야 할 때이다. 61년생 성취의 보람을 만끽하라. 73년생 세밀하게 살피보면 중차대함을 찾게 될 것이로다. 85년생 생을 잘 해야 손해보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11.95	未 43년생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어지럽겠다. 55년생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야 망실이 없을 것이다. 67년생 여유를 갖고 자신의 뒤를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나, 79년생 열린 마음이 많은 기회를 담보하라. 행운의 숫자 : 54.91
寅 50년생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전세를 놓치게 된다. 62년생 소신과 자신감을 좀 더 나은 결과로 이끈다. 74년생 소홀하다가 는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자. 86년생 소홀함이 없어야 풀리리라. 행운의 숫자 : 19.06	申 44년생 예의 주시한다면 의외로 얻는 바가 대단히 많을 것이다. 56년생 예전과 별 반 차이가 없다. 68년생 과거에 미쳐 몰랐던 원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다. 80년생 오늘 반드시 행해야 할 바가 있을 것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48.70
卯 51년생 자신이 술선수반한다면 모두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63년생 순조로움을 더 할 것이다. 75년생 숨어있는 내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해결될 것이다. 87년생 쉽게 기회가 오지는 않을 것이니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85.65	酉 45년생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57년생 결 모습까지 신경 썼을때 재앙을 할 것이다. 69년생 요령 있게 대처해야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81년생 유연히 길사의 연결이나 오래가지는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6.17
辰 40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2년생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나가자. 64년생 슬관화된다면 순기능을 하리라. 76년생 경향이 달라질 것이다. 88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7.84	戌 46년생 웃음꽃이 만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 58년생 원리를 잘 응용할 줄 아는 삶의 지혜가 요망된다. 70년생 유리한 국면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판세이다. 82년생 유연한 사고방식이 순조로움을 이룰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55
巳 41년생 당래 문제의 실마리가 되어 줄 수 있느니라. 53년생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 줘야만 한다. 65년생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77년생 예로 상황이 생길 수다. 89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계획대로라면 대박이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4.21	亥 47년생 유익한 이외의 만남이 있을 수다. 59년생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백만 나을 것이다. 71년생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83년생 의미와 가치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74.94